12강 분열분석과 탈주의 윤리학 2

(1교시)

◆ 새로운 주체를 생산할 수 있는 욕망

※ 학습목표
새로운 주체를 생산할 수 있는 욕망을 이해한다.

▲ 관료기계와 아버지의 이름
국가는 그 측면전동기관으로 관료장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원시사회의 코드들을 해체하면서 전제군주의 측면기관으로 출현한 관료기계는 그 작동방식의 추상성 때문에 자본의 공리계에 가장 먼저 흡수되는 국가기관입니다. 「대부」는 관료기계의 '비인간적' 추상성을 잘 보여줍니다. 동사무소 호적계 창구 앞에 일군의 어린 자식들을 대동한 촌스러운 부인이 나타납니다. 8일 전에 태어난 자식을 호적에 올리려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류를 놓고 왔다가 다시 와보니 이번에는 법적 기한(3일)을 넘긴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나 삼촌이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 것이나 법정 기한을 넘긴 것 때문에 이미 한껏 주눅이 든 이 부인은 겨우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내밀며 애걸합니다. 그런데 호적계 직원의 말이 가관입니다. "등록 당사자 실물의 존재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것은 실재 아이와 그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성인 남자들이 공증한 "경찰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서류에 의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찰이 공증하고 아버지가 날인한 서류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관료장치의 기계적 성격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인데요. 실은 저희들 담당이 아니라서. 저도 어쩔 수 없군요.' 관료장치 안에서는 도대체 책임주체인 '인간의 얼굴'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행정절차와 서류뿐입니다. 하지만 미로 같은 행정망을 헤매다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적절한 증명서가 없음에도…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우 큰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마운 예외적 '인간'으로 인해 관료기계는 더욱 신비로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의 '예외적'인 조처가 '특별한' 권력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관료장치의 '일반적' 권위는 이처럼 '예외적' 특권에 기반 해있습니다.
호적계 서기의 특혜에 힙 입어 증명서 없이도 등록할 수 있게 된 아이 엄마는 마지막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 엄마가(실은 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가부장적 복제 욕망과 형제 내 동명이인이 초래할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관료주의적 합리성 사이의 갈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에서 아이 자신과 어머니의 특이성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아이 엄마가 즉석에서 "쌀바도르"(쌀바도르 아옌데를 떠올리며)라는 이름을 내 뱉으면서 해소됩니다. 부재하는 아버지와 관료장치의 아버지가 다투는 틈새를 제 3의 아버지, 저항과 양심의 상징, 아옌데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입니다.(아마 아이 친 아버지는 아옌데를 지지하다 잡혀갔거나 도망 다니고 있나 봅니다.) 이 결말을 우리는 해피앤딩이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아이 자신의 이름, 아이의 특

www.artnstudy.com

이성을 가장 잘 표현해줄 이름을 갖는 게 아닐까요?

▲ 사랑과 전쟁

1970년 9월 칠레 민중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세력의 보이코트가 이어졌고 급기야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에 의해 사회주의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되었고, 수많은 공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외로운 이의 투고란」은 이 투쟁의 와중에 해체될 뻔한 가족의 단면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74년 4월 14일 <라스 울띠마스 노띠시아스>지 편집장에게 보낸 한 부인의 편지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아옌데를 따르는 '혁명가'인 남편에 대한 정치적 불만과 그의 외도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노체트 쿠데타를 "우리의 영광스런 군대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의지를 실행하여" "정상상태로의 복귀, 즉 타락자와 날강도들을 겁내지 않고 안뜰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우리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는 이 보수주의 여성은 아옌데 집권 동안 물 만난 고기처럼 행복해하며 자기 "여자친구들"과 정치활동을 하는지 연애활동을 하는지 가정을 소홀히 해 온 남편이 쿠데타 이후 겉으로는 예전의 가장으로 되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몰래 과거의 '정치적' 연인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TV프로그램(신구씨의 "4주 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유명한) 중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이 프로의 제목 '사랑과 전쟁'은 이 소설에 중첩된 관계의 본질을 명료하게 표현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명 사랑의 관계입니다. 소설 속 아내가 아옌데 집권기 동안 자신을 '반동적'이라거나 '무식하다'며 무시하고 별거까지 요구해온 남편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이한테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정과 정치는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정치' 하면 '정강', '정당'을 떠올리며 '권력을 향한 합법적 경쟁'으로 정의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전쟁'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남자와 아내,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고용인 등 사회적 관계 전체의 재편을 위한 활동을 의미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 일체가 의문에 부쳐지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전쟁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겁니다. 사랑은 전면전입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야 사랑했다고 할 수 없겠죠. 사랑은 주체가 타자화되는 경험이며, 타자가 주체화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계층적 관계, 종교적 관계)로부터 이탈될 위기에 처하며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토와 코드를 횡단해야 합니다. 사랑은 욕망이 그렇듯이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는 과정입니다.

▲ 영토화, 코드화된 인간관계

오늘날 우리는 전쟁 같은 사랑을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전쟁 같은 욕망을 잃어버리고 한갓 문화적 소비품이나 경제적 투자항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영토화되고 코드화된 인간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설의 아내처럼 단지 '화합'과 '결합'의 원리로만 이해할 때 사랑은 그

www.artnstudy.com

본연의 정치적, 전쟁적 요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사랑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변화를 방해하는 집착으로 변해 버립니다.

▲ 정치적 실천의 문제

하지만 정작 이 소설에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정치꾼들의 정치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부면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실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옌데(사회주의)가 추구한 것은 단지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남녀관계, 공장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 일체의 권위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재편하는 것일 텐데 이 남편은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면서 정작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권위적인 관계로 남겨두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기만 합니다. 진정으로 정치적인 실천은 먼저 가정에서, 사랑에서, 섹슈얼리티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어떻게? 아내는 단지 아내와 어머니일 뿐이라는 이전의 권위주의적 관념을 벗어버리고 아내를 사회적 주체, 정치적 주체로 대해야 하는 거죠. 남녀평등은 권리의 평등 이전에 상호주체적 관계 설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담화나 선거에 대한 토론이 정치적 대화가 아니라 침실과 부엌과 거실에서의 역할에 대한 대화가 훨씬 더 정치적입니다. 습속과 욕망의 체제를 바꾸지 않은 채 국가권력을 바꿔서 뭐하겠습니까? 권력의 주인만 바뀔 뿐 권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 상호주체적 관계

정치를 한낱 정치꾼들의 권력투쟁으로만 보니까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남편은 "난 이제 정치에서 손뗐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졸개가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위장전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보신'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저 무사히 살아 남은 여자 동지와 만나 "뺨에다 키스를 퍼붓고는 팔짱을 끼고" 다음의 정치활동을 모의하는 일 말고는. 좋습니다. 어차피 아내에게는 정나미가 떨어졌고 그나마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 여성과 함께 애정의 꽃을 피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요. 이 경우 그게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이란 건 뭘까요? 보통 윤리적이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정으로 윤리적인 것은 타인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인정하는 상호주체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신이 욕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혁명가' 남편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은 물론이고 애인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윤리적인 선택일까요? 「상담」의 고문장교가 고문의 관계 이후에도 의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에도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이지 않을까요? 정치활동의 패배를 인정하고 왜곡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윤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책임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패배를 패배로 책임지기, 그래서 이전의 자기는 죽고 새로운 주체를 생산할 욕망만 남기는 것이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www.artnstudy.com

12강 분열분석과 탈주의 윤리학 2

(2교시)

◆ 주체집단들의 창출

※ 학습목표
주체집단들이 창출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혁명가의 오이디푸스 가족
『식구』는 아옌데를 지지하는 아버지와 군부의 강압에 굴복하여 군대에 입대한 아들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군입대를 아버지처럼 "가족의 경제사정에 역행하는 반역행위"로 인정할 만큼 의지적인 아옌데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군복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총살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게다가 일년은 금방 간다는" 현실적인 생존의 논리에 굴복한 비의지적 전향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전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조위원장 출신의 열성적인 아옌데 지지자입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이 둘의 긴장을 풀어줄 사람은 큰딸 마리아 에우헤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알카셀쩌'(진통제 이름)라는 애칭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당찬 그녀의 성격에다 눈 속에서 반짝이는 매혹적인 불꽃, 그리고 슬픔의 존재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서 슬픔을 덜어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 세 가지 윤리학
이 세 명은 세 가지 윤리학을 대표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굽힐 수 없는 의지의 원칙에 입각한 윤리학을, 아들은 현실적 생존을 최종의 가치로 두는 생존의 윤리학을, 마리아는 삶의 기쁨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쾌락(기쁨)의 윤리학을 대표합니다. 파시즘의 폭력 앞에서 아들은 생존의 현실원칙을 위해 친구들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 군대에 가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변절자라고 욕하며, 마리아는 돈 많은 이의 쾌락에 봉사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삶의 절박함과 윤리의 허약함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입니다. 소설 초반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긴장은 '달리기 시합'으로 살짝 풀리는 듯 했지만 집에 돌아와 마리아의 부재(마리아의 치욕스러운 돈벌이)에 대한 아들의 추궁과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다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아들은 사랑하는 누이가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에 분노를 터뜨리는(마리아가 벌어준 돈으로 끓인 닭고기 국그릇을 쏟아버리려는) 원칙주의자가 되고, 실직 당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마리아의 돈벌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 둘은 자신의 원칙을 상대(결국 자기 자신)에게 모멸과 증오의 시선을 보내며 뜨거운 국그릇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 욕망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가족
국그릇의 뜨거움과 마리아의 시련과 양심을 저버린 고통과 그럼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삶의 절박함 끝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며 외칩니다. "좋아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가슴이 흐뭇해지는 결말인가요? 이 다 큰 어린애 같은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과 화해의 자리에

www.artnstudy.com

마리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족'의 화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일 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없습니다.
이 남자들은 한없이 미숙한 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지켜야 할 정치적 신념이란 것도 우스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운 이의 투고란」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이들은 가족 내부의 관계와 정치적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까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오라비와 누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혈연과 애정에 의한 유대감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하지 사회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애정과 믿음은 아버지와의 달리기 시합이나 엄마가 끓여주는 닭죽으로 상징되기만 할 뿐 욕망의 생산과 이성적 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이나 닭죽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징은 표현할 뿐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족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원간의 상호주체적인 욕망의 접속과 이성적 토론과 공동의 책임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가족을 고통의 연대의식으로 맺어진 공감의 공동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욕망의 생산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 감응의 능력과 탈주

「독자」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과 동일시가 예상치 못한 탈주의 선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돈 알폰소는 운동권이었던 아들을 둔 아버지로, 그의 직업은 검열관입니다. 20년 경력의 이 출판 검열관은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입니다. 그의 비결은 "번개 같이 빠르고 무자비한 판단" 능력에 있습니다. 작품의 세부 하나 하나의 정치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교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 검열관에게 한 권의 소설책이 맡겨집니다. 『변모』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서기 8000년 가상적인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중의 불만이 극에 달해 '누군가'의 촉발만 있으면 혁명의 불이 타오를 시점입니다. 소설은 그 '누군가'를 행정부의 한 말단 관리로 설정합니다. 폭압적 관료체제의 문지기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 신비롭던 권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가던 우리의 검열관 돈 알폰쏘는 "비현실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서른 한 살에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가끔 애인의 집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생김새나 행동거지도 꼭 자기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착실해진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되고 아들의 출세를 위해 "현정권의 충복" 노릇을 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처 읽지 못한 결말을 듣기 위해 그는 직접 작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작가도 결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란한 작가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그는 다음날 『변모』의 출판을 승인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직장을 잃는 건 물론이고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할 게 확실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권력의 문지기였던 그는 권력의 성문을 활짝 열고 혁명의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단한 '변모'입니다. 『변모』라는 소설의 미지의 결말은 돈 알폰쏘의 선택과 혁명의 촉발이었던 것입니다.

▲ 욕망생산의 동인

검열관이 혁명의 촉발자로 '변모'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동일시의 힘입니다. 소설(fiction)과의 동일시, 그것을 매개로 한 아들의 억압된 욕망과의 동일시가 그의 동일성을 변모시킨 힘이 된 것입니다. 동일시는 주체의 무의식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주

www.artnstudy.com

체를 변모시키는, 주체를 타자화하는 욕망생산의 동인입니다. 타자의 욕망과 접속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다른 존재로 변모되는 경험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 그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의 욕망과 만나자기 역시 욕망의 주체가 될 때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은 욕망의 생산공장이 되고 사회적 장에 혁명적 욕망을 공급하는 혁명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예속집단이 욕망생산의 주체집단이 되는 것은 돈 알폰쏘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욕망과의 감응 능력과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필요도 없는 집단으로의 횡단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탈코드화하는 욕망의 흐름

동일시의 능력이 억압장치로부터 탈주하게 하는 힘으로 사용된 사례를 「거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인」의 주인공 '떼오'는 두 형들과 똑같이 군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군 병원 침상에 묶여 있습니다. 두 형은 이미 주임을 당했고 군 당국은 형들이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떼오는 바로 그 보고서의 날조된 탈출경로대로 탈주(fuite)를 감행합니다. 군당국은 자신의 살해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세부 디테일까지 그럴듯한 '허구'를 꾸며야 했고 떼오는 그들이 세워놓은 허구적 시나리오 속의 형들이 되어 탈출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떼오는 당국의 탈출 시나리오대로 침상을 밀어 복도로 나옵니다. 병실을 지키던 상병은 당국의 거짓 시나리오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는 구속자가 그토록 가당찮은 탈출을 도모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정작 그 시나리오를 실행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은 자신의 상상일 뿐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시의 눈은 외부로만 향할 뿐 자기 아는 내부로는 향하지 않게 됩니다. 떼오는 바로 그 감시의 사각지대를 통해 탈출을 감행합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로부터 탈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풀어놓은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는 욕망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전지구적 착취를 위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는 사람의 흐름과 욕망의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단지 상대적으로만 풀어놓은 탈코드화한 욕망을 절대적으로 분열증식시켜야 합니다.

▲ 파시즘적 주권형성체로부터의 탈주

한편 날조된 시나리오대로 복도로 나와 경비병 한 명을 쓰러뜨리고 권총을 탈취하여 승강기를 타고 1층 로비까지 오는데 성공한 떼오는 이제 "형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부터도" 탈주할 시점임을 깨닫습니다. 떼오는 시나리오대로 경비병들에게 앰블런스를 부르라고 명령한 후 그들의 눈을 가린 채 앰블런스에 태우고 자신도 거기에 탄 것처럼 꾸밉니다. 시나리오 속의 거짓 자기를 실은 앰블런스는 떼오의 요구대로 시나리오 속의 형들이 죽은 협곡을 향해 달려가고 떼오는 "마침내 저 대령이 발언하지 않았던 말들"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자본과 국가의 주군형성체로부터 탈주하기 위해 그들의 거짓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탈주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순간 이제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길, 그들이 상상도 못한 경로로 바꿔 타야 합니다. 자본의 공리로부터 파시즘적 주권형성체로부터 탈주하기 위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자본주의적 상상력,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화폐 공동체는

www.artnstudy.com

상상도 못하는 횡단의 네트워크를 발견해야 하며, 자본의 흐름에 포획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 수 있는 집합적 신체를 구성해야 하며, 예속화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주체집단들을 창출해야 하며, 비국민, 비민족, 심지어 비인간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의 무늬를 그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겨우 돈과 국가와 가족만 아는 자들의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삶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www.artnstudy.com